

# 한국사 입문

---

①

## 한국사의 시작과 고대국가의 성립

---

- 1차시. 한국사의 시작과 국가 형성
- 2차시. 한국 선사시대의 사회와 문화
- 3차시. 초기 여러 나라의 사회와 문화
- 4차시. 삼국과 가야의 성립과 발전
- 5차시. 삼국과 가야의 문화
- 6차시. 선사시대에서 삼국시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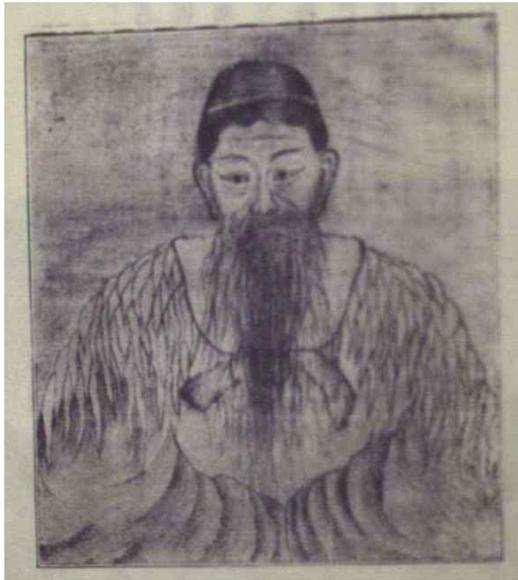
## 01

## 3. 초기 여러 나라의 사회와 문화

## 학습 목표

- 초기 여러 나라의 시공간적 위치를 대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초기 여러 나라의 사회와 문화상을 구체적인 사례로써 설명할 수 있다.

## 1. 들어가기



현재 양력 10월 3일은 대한민국의 국경일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는 개천절(開天節)이다. 한자를 풀어보면 하늘이 열린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개천절은 기원전 2333년 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는 단군을 숭상하는 대종교(大倥敎)의 행사에서 비롯되었고,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모두 이 날을 국경일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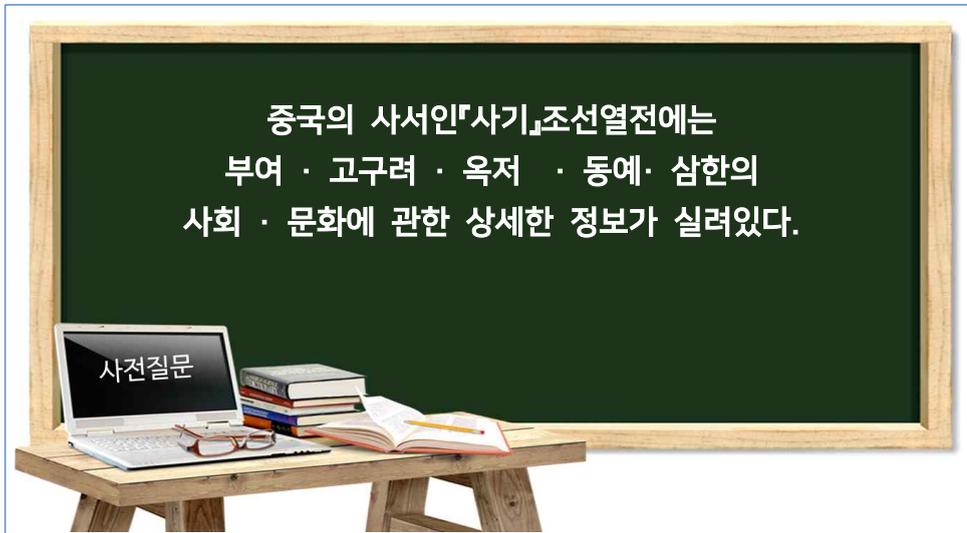
한편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61년까지 단군기원(檀君紀元), 즉 단기(檀紀)가 사용된 바 있다. 단기란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하여 즉위한 해(단군원년, 기원전 2333년)를 원년으로 삼고 연수(年數)를 누적하여 합산하는 기년 방식이다. 예를 들면 1955년은 단기 4288년이다. 여담으로 한국 사회에서 흔히 쓰는 ‘쌍팔년도(구식[舊式]의 시대)’라는 말은 ‘서기 1988년’이 아니라 ‘단기 4288년’에서 비롯된 것이다.

단군은 지금을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에게 시조(始祖)적 존재로 여겨진다. 그리고 고조선은 한국 역사상 최초의 국가로서 각별히 중시되어 왔다. 이

**tip** 기원전 2333년이라는 단군 즉위(고조선 건국) 연대는 ‘단군의 즉위년이 중국 고대 요(堯) 임금 25년인 무진년(戊辰年)에 해당한다’는 『동국통감』(1485) 외기(外紀)의 기록에 따른 것이다.

고조선으로부터 한국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고조선의 영역 또는 세력 범위, 그리고 그 주변부에서 부여·고구려·옥저·동예·삼한(마한·진한·변한)이라는 초기 여러 나라의 역사가 전개되었다.

## 2. 준비하기



정답 ( X )

## 3. 학습하기

### 1) 고조선의 형성과 사회·문화

#### (1) 고조선의 건국설화

13세기 후반에 편찬된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고조선 건국설화가 전한다. 먼 옛날 환인(桓因)의 아들 환웅(桓雄)이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세상을 다스리면서 곰이 사람으로 변한 웅녀(熊女)와 혼인했다. 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고조선을 세운 단군왕검(檀君王儉)이다. ‘단군왕검’이라는 호칭에 관하여 ‘단군’은 제사장(祭司長, priest), ‘왕검’은 군장(君長, chief)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이를 토대로 고조선이 제정일치(祭政一致) 단계의 사회였다고 간주한다. 또 환웅과 웅녀의 혼인에 대해서는 곰을 숭배하던 토착집단과 외래세력(청동기·농경문화)의 결합을 상정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대체로 고조선이 북방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한 농경사회라고 보는 데 큰 이견은 없는 편이다.

고조선은 발달된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성립했다. 비파형동검·고인돌 등이

**tip** 제정일치(祭政一致)란 신(神)을 모시는 제사장(祭司長)이 통치하는 국가 또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유적이다. 이러한 고조선의 문화는 중국계 청동기 문화와 확연히 구분된다. 현재의 중국 동북 지역과 평양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북부를 고조선의 범위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넓은 지역을 고조선의 '영역'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만 고조선을 포함하여 고조선과 문화적으로 친연성이 있는 집단이 이 일대에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 (2) 고조선사의 전개



고조선사 관련 문화 범위

고조선의 구체적인 실체는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비로소 확인된다. 기원전 4세기 전후에는 중국의 제(南)나라와 교류하거나, 연(燕)나라와 대적할 정도로 성장했다. 그러다가 기원전 3세기 초 연나라의 침략으로 그 서방의 영역 상당 부분을 잃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고조선의 중심지가 요동에서 평양으로 이동했다고 보기도 한다.

기원전 195년경에는 위만(衛滿)이라는 사람이 망명했다. 그는 점차 세력을 키워 준왕(準王)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이른바 '위만조선'의 성립이다. 위만과 그 손자 우거왕(右渠王) 때는 한(漢)나라에 겉으로는 복종하면서 뒤로는 우수한 철제 무기를 바탕으로 주변의 여러 세력을 병합하여 국력을 키워 나갔다. 그 사이 한나라와의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결국 1년여에 걸친 한나라와의 전쟁 끝에 기원전 108년에 위만조선은 멸망했다. 한나라는 그 땅에 낙랑군(樂浪郡)을 비롯한 4군(郡)을 설치했다.

### (3) 고조선의 법속

『한서』 지리지에 따르면, 고조선 사회에는 범금팔조(犯禁八條)라는 법률 규정이 있었다고 한다. 8가지 조목 중 3가지만 전하는데, 살인을 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하며, 도둑질한 사람은 그 집의 노비로 삼고 만약 속죄하고자 한다면 50만 전의 돈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빈부의 격차에 따른 불평등 심화와 계급의 발생, 노동력 중시와 사유재산 개념의 존재를 보여준다.

## 2) 부여의 형성과 사회·문화

### (1) 부여의 성립과 정치구조



초기 여러 나라의 위치

부여는 기원전 3~2세기 무렵 지금의 중국 길림성 송화강 유역 일대에서 성립했다. 부여는 넓은 평양지대에 위치하여 농업과 목축이 성행했다. 이에 일찍부터 나라가 부유하였고, 중국의 여러 나라와 우호관계를 맺고 활발하게 교류했다.

부여에서는 국왕을 중심으로 유력한 세력인 대가(大加)들이 국가의 주요정책을 논의하여 결정했다. 대가에는 우가(牛加), 마가(馬加), 저가(豬加), 구가(狗加) 등 이른바 육축관(六畜官)이 있었고, 이들 대가는 사출도(四出道)라고 불린 독자적 영역을 관할했다.

**tip** 육축(六畜)은 집에서 기르는 대표적인 가축인 말·소·양·닭·개·돼지를 일컫는다. 육축관은 이러한 가축의 이름을 딴 관직을 말한다.

## (2) 부여의 사회와 문화

부여의 법속은 엄격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하고, 그 집안 사람들을 노비로 삼았다. 도둑질을 하면 훔친 물건의 12배를 변상하게 했고(1책 12법), 남녀 간에 음란한 짓을 하거나 여자가 투기를 하면 모두 죽였다. 투기를 특히 미워해서 죽인 뒤 그 시신을 남산 위에 버려두게 했고, 가족들이 시신을 가져가려면 소와 말을 바쳐야 했다고 한다.

12월에는 제천행사를 열었는데 이를 영고(迎鼓)라고 한다. 이때 사람들은 하늘에 제사하고 축제를 즐기며 죄수를 풀어주었다. 전쟁을 하게 되면 하늘에 제사를 지냈고, 소를 잡아 그 발굽을 가지고 길흉을 점쳤는데, 발굽이 갈라지면 흉하고 발굽이 붙으면 길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부여에는 흉노와 유사하게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 풍습도 있었다.

## (2) 한국사 속 부여의 위치

부여는 3~4세기에 걸쳐 선비족(鮮卑族)의 침입과 고구려의 성장으로 인해 그 세력이 점차 약화되었다. 최종적으로 5세기 말 고구려에 병합되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그렇지만 고구려와 백제의 지배세력이 모두 부여에서 왔음을 표방할 정도로 부여가 한국사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다.

## 3) 고구려의 형성과 사회·문화

### (1) 고구려의 형성



고구려의 발성지 오녀산성

고구려는 기원전 37년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집단이 압록강 지류인 혼강(渾江) 유역의 졸본(卒本, 중국 길림성 환인)에 세운 나라이다. 고구려가 건국된 지역은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농사를 지을만한 넓은 땅은 없어서 식량이 충분하지 못했다. 이에 고구려는 일찍부터 주변 지역을 정복하거나 중국 세력과 싸우면서 넓은 평야 지대로 진출하고자 했다.

고구려는 처음에 다섯 개의 부(部)로 구성되어 있었다. 소노부·절노부·순노부·관노부·계루부가 그것이다. 원래는 소노부에서 왕을 배출했지만, 이후 계루부가 그 위치를 대신하였다. 절노부는 대대로 왕실과 혼인하는 왕비족의 지위에 있었다. 고구려에도 부여와 마찬가지로 대가(大加)로 칭해지는 유력한 지배세력이 있었다. 이들은 나라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 모여 회의를 통해 사안을 처리했다. 이를 제가회의(諸加會議)라고 한다.

## (2) 고구려의 사회와 문화



국동대혈 추정지

고구려에서는 10월에 동맹(東盟)이라고 불리는 제천행사를 치렀다. 이때 나라 동쪽의 큰 동굴(국동대혈)에서 신(神)을 맞이하여 동쪽 강가에서 제사를 지냈다. 혼인 풍속으로는 서옥(壻屋)이 있었는데, 남자가 혼인한 뒤 일정 기간 처가에 살다가 아이가 장성하면 가족을 데리고 본가로 돌아오는 혼인 형태였다.

## 4) 옥저·동예의 형성과 사회·문화

### (1) 옥저의 사회와 문화

옥저(東沃沮)는 지금의 함경도 일대에 있었다. 해안을 끼고 있어 어물과 소

금 등 해산물이 풍부하고 토지 또한 비옥했다. 그러나 일찍부터 고구려에 복속되어 크게 성장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왕은 없었고 삼로(三老)라고 칭해지는 여러 읍락의 우두머리가 있을 뿐이었다.

옥저의 언어나 음식거처, 의복예절 등은 고구려와 비슷한 점이 많았다. 혼인 풍속으로는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이는 며느리가 될 여자아이를 남자 집에서 데려다 키운 뒤 성인이 되면 본가로 돌아가게 하고, 이후 남자 쪽에서 예물을 지불한 뒤 다시 데려오는 혼인 형태였다. 장례 풍속으로는 골장제(骨葬制)가 있었는데, 사람이 죽으면 임시 매장했다가 이후 뼈만 추려 큰 목곽(木槨) 속에 안치하는 것이었다. 이 목곽은 가족 공동 무덤이었다.

## (2) 동예의 사회와 문화

동예(東濊)는 옥저의 남쪽에 바다를 끼고 있었는데, 대체로 지금의 강원도 일대에 해당한다. 예 역시 옥저와 마찬가지로 일찍이 고구려에 복속되었고, 읍군(邑君)·삼로(三老) 등 여러 읍락의 우두머리가 있었다. 그 언어와 법속은 고구려와 대체로 유사했다.

동예의 풍속에서는 산천(山川)을 중시하여, 산과 내마다 각기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다. 만약 부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그 벌로서 노비와 소·말을 부과했는데, 이를 책화(責禍)라고 한다. 그 법속은 엄격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죽였고,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적었다. 해마다 10월에는 제천행사를 열었는데, 이를 무천(舞天)이라 하였다. 또한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제사지냈다. 동성(同姓)끼리는 혼인을 하지 않는 풍속도 있었다(족외혼). 특산품으로는 단궁(檀弓), 반어피(班魚皮), 표범(文豹), 과하마(果下馬) 등이 있어 이를 중국에 수출하기도 했다.

## 5) 삼한의 형성과 사회·문화

### (1) 삼한의 형성

한반도 중남부에는 일찍부터 진국(辰國)을 비롯한 여러 정치체가 존재했다. 기원전 2세기 말 위만조선이 멸망하면서 그 남은 백성들이 대거 남쪽으로 왔다. 이들이 가지고 온 새로운 문화는 기존의 토착문화와 융합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마한진한변한이라는 삼한이 성립했다.

마한은 지금의 경기도·충청도·전라도 일대에 위치했고, 진한은 경상도 동북

부, 변한은 경상도 서남부 일대에 있었다. 3세기 무렵 마한은 50여 국, 진한과 변한은 각각 12개국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 마한의 목지국(目支國)·백제국(伯濟國), 진한의 사로국(斯盧國), 변한의 구야국(狗邪國) 등과 같은 대국(大國)이 있었다. 목지국을 제외한 3국은 훗날 백제·신라·가야로 성장하게 된다.

## (2) 삼한의 사회와 문화

일반적으로 삼한의 각 국에는 신지(臣智), 읍차(邑借) 등으로 불리는 우두머리가 있었다. 삼한의 국읍(國邑)에는 천군(天君)이 있어서 천신(天神)제사를 주관했다. 소도(蘇塗)라고 칭해지는 별읍(別邑)도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겼다. 소도는 죄인이 한번 숨으면 함부로 잡아가지 못하는 신성지역이었다.

삼한은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좋아 일찍부터 농경이 발달하였다. 씨뿌리기를 마친 5월과 추수가 끝난 10월에는 축제를 열고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삼한은 주변 여러 세력과도 활발히 교류했다. 특히 잔변한에서는 철을 생산하여 마한과 동예, 일본열도의 왜(倭), 낙랑대방군과 같은 중국 군현(郡縣)에 공급하였다.

## 4. 요약하기

한국 역사상 최초의 국가 고조선은 한반도의 독특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되어, 기원 전 4세기 무렵에는 이미 중국과 교류 및 대적이 확인될 정도로 성장하였다.

기원전 3~2세기부터 기원후 3세기 무렵까지 지금의 한반도와 중국의 동북 지역에는 부여와 고구려 등의 왕국과 옥저나 동예, 삼한과 같은 여러 형태의 정치체가 폭넓게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이들의 존재 역시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다.

## 5. 출처

### 참고문헌: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편, 2017, 『한국사』, 새문사.

김정배 편, 2010, 『한국고대사입문1』, 신서원.

박대재, 2018, 「고조선사체계의 재인식」, 『한국학논총』50.

### 이미지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넷

(주)천재교육